



광주천변 밝힌 '미래의 빛' 가을비가 내린 12일 시민들이 '미래의 빛'을 주제로 광주천변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14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총감독 정운학) 참여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파트너 현대차·GS그룹

# 낙후도 감안한 '통 큰 투자' 기대

삼성, 대구에 900억원·SK, 대전에 518억원 투자 확정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 개소...市·道 금액 등 물밑 접촉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광주·전남 등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기업별로 투자금액을 둘러싸고 자치단체들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재계 순위나 자산규모에 따라 투자액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래 지역경쟁력의 핵심시설이 될 창조센터마저 '빈익빈 부익부'를 촉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대기업과 시·도를 묶어준 뒤 투자금액이나 창조센터의 역할 등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GS 등 광주·전남과 파트너를 맺은 기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 낙후한 지역 여건을 감안해 '통 큰 투자'에 나서기를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

근 재계서열 1위(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인 삼성이 대구 창조센터에 900억원, 3위인 SK가 대전에 518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센터 출범식까지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광주와 부산, 인천, 경기, 경남 등 5개 지역의 창조센터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며, 개소 즉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조경제협의회를 구성해 민간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에 전남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지역도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이 준비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지역 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하고,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밀착 지원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취지로 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투자금액은 일중

의 편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운영비는 국비와 도비로 충당된다. 자연히 편도 조성 규모에 따라 지역의 혜택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재계서열 2위인 현대차와 파트너로 묶인 광주시는 올 연말 창조센터 출범을 목표로 서구 양동 KDB생명빌딩 1개 층(500평 규모)을 센터 공간으로 확보했으며, 청와대, 미래창조과학부, 현대차 등 4개 기관·업체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 창조센터 출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현대차측에 자동차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및 신규 창업 지원을 비롯한 자동차 산업 및 창조기업·창업 아이디어 업체 모집·지원, 지역 발전과 관련한 현대차만의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핵심사업안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창조센터의 성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4개 기관·업체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고민하고 있다"며

서 "조만간 핵심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금액은 이후에야 논의·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파트너인 재계서열 8위 GS와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우기종 정무부지사가 GS칼텍스 사장과 면담을 갖는 등 2~3차례, 실무진은 이보다 더 자주 만나면서 투자금액을 조율하고 있다. 내년 운영비 27억원의 국비 17억원과 도비 10억원으로 마련한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GS그룹 회장이 창조경제혁신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통 큰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재계서열이 앞선 대기업은 투자 금액이 크고 낮은 대기업은 적을 수밖에 없어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달 중으로 창조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을 확정된 뒤 내년 1월 문을 열 계획이다. 창조센터는 GS칼텍스 공장이 위치한 여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대한민국 대통합 출발점

# '영호남 상생포럼' 발족

광역단체장 등 발기인 참여

오늘 서울시청 광장서 발대식

15일까지 화합 한마당 축제

■ 국민대통합 영호남 상생 행사 주요 일정

행사명	장소	일시
영호남 상생 포럼 발대식	서울시청 광장	13일 오후 4~6시
영호남 특산물 대전	"	13~15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하나된 대한민국' 토론회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4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지역갈등과 세대갈등 극복을 통한 국민통합 시대 건설'이 정치·사회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호남 화합의 한마당이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진다.

13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이낙연 전남지사·권영진 대구시장·김관용 경북지사 등 영호남 광역단체장과 의회 의장, 교육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추전' 개막식이 열린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영호남 광역단체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영호남 상생포럼' 발대식이 열릴 예정이다.

포럼 발기인들은 "영호남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다짐을 내놓을 예정이다.

영호남 상생포럼 출범식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식전행사가 열린다. 광주 어린이 공영단과 대구 청소년 대북공연단이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이날 프로그램들은 두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일 기회로, 서울시민들에게도 좋은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개막행사 다음날인 1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호남 상생포럼 주관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갖는다.

1부는 채널A 이연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대한민국 사회의 지역갈등 및 세대갈등 진단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한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해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 이상훈 매일신문사 편집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2부는 김대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김운 학장(경국학당), 이동학 소장(다준다 청년정치 연구소), 채진원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동관 매일신문사 문화부장, 정치평론가 전계완 매일피앤아이 대표가 참석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포럼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중도·진보 인사들과 영호남 상생포럼 공동 대표단의 인터뷰 등과 함께 '대한민국 치유, 열병과 대한민국'(가제)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 중인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영호남 농·수·축 특산물 판매대전'도 펼쳐지며, 지역의 각종 특산물들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된다.

이밖에 행사기간 동안 여자 싸씨를 대화·사투리 경연대회·마술 퍼포먼스·영호남 예술공연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도 펼쳐질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범·사대 광주교육대학교

제40회 총동문체육대회

- 일시 : 2014. 10. 18 (토) 09:00
- 장소 : 모교 운동장(풍향대)
- 전화 : 062)520-4555

광주시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손정선

광신대학교 설립 60주년 기념  
**제2회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일시: 2014년 10월 13일(월) 오후 4시  
장소: 광신대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문의: 062)605-1064

# 2014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2014. 10. 22(수) ▶ 10. 28(화)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 일원

- |         |         |         |
|---------|---------|---------|
| 체험 프로그램 | • 통합의학관 | • 약선요리관 |
|         | • 건강체험관 | • 의료산업관 |
| 부대 행사   | • 자연치유관 | • 건강음식관 |
|         | • 학술관   | • 재활승마장 |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기간 2016. 9. 29 ~ 10. 31  
장소 전남 장흥군 일원  
행사내용 통합의학 국제교류, 전시·체험, 건강행사 등